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9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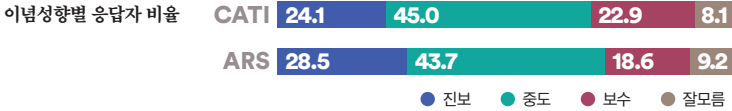
제104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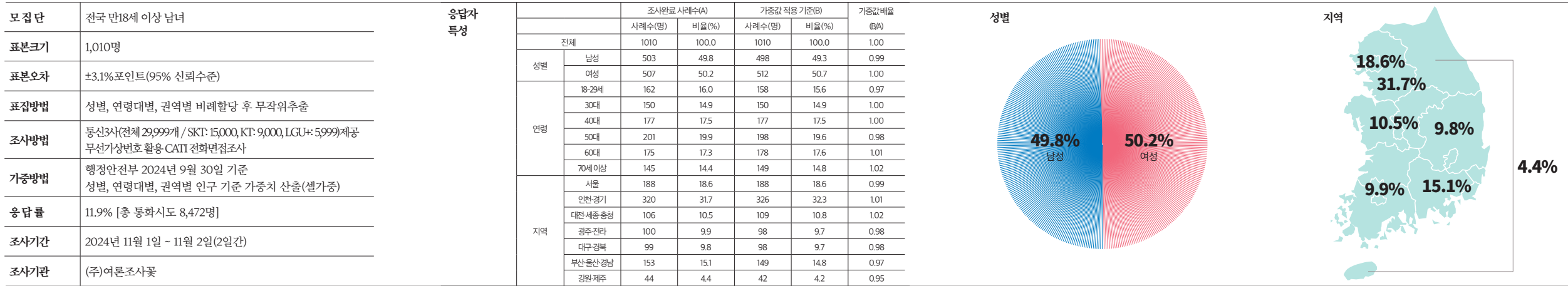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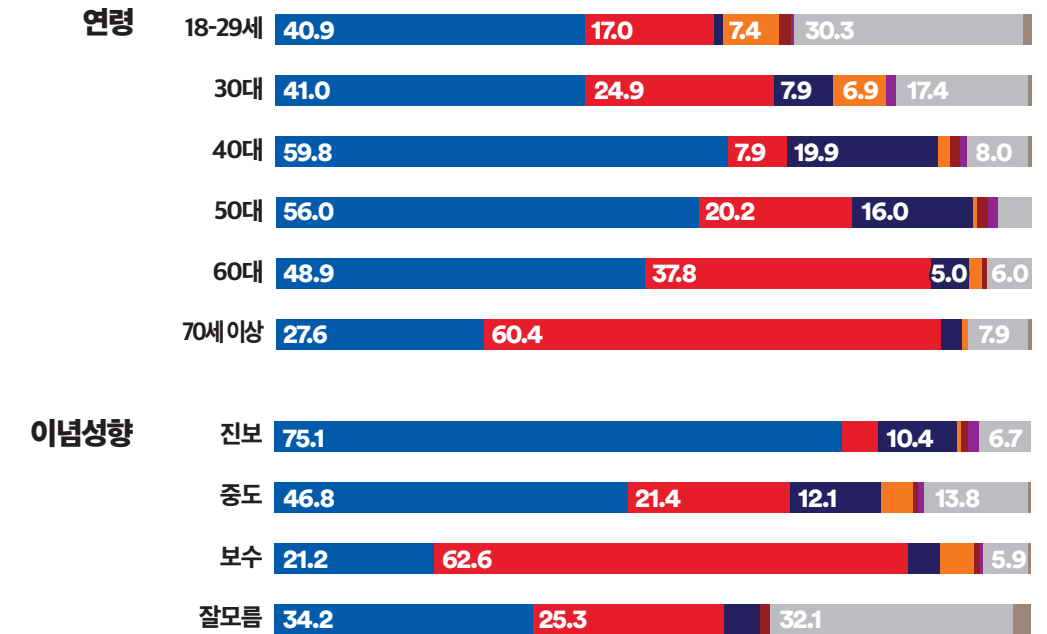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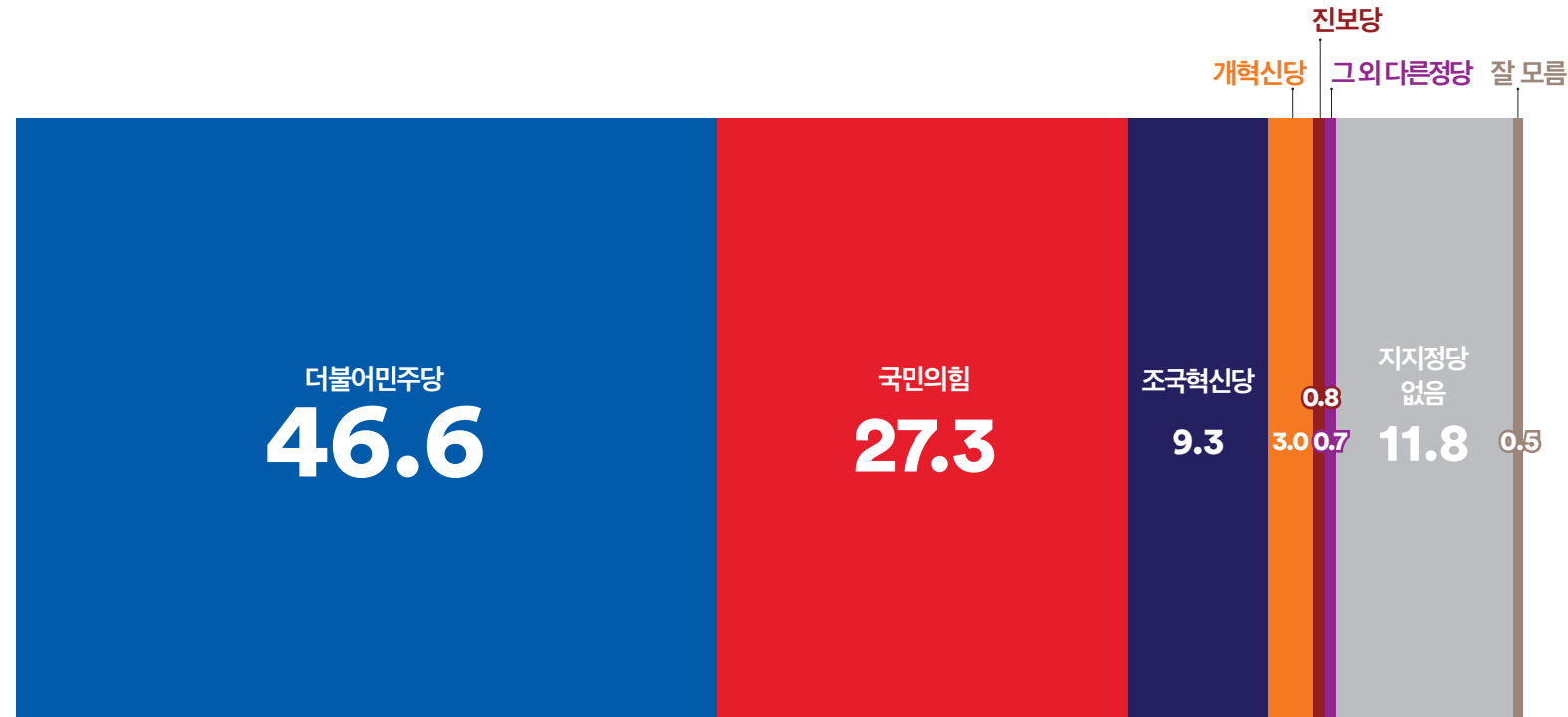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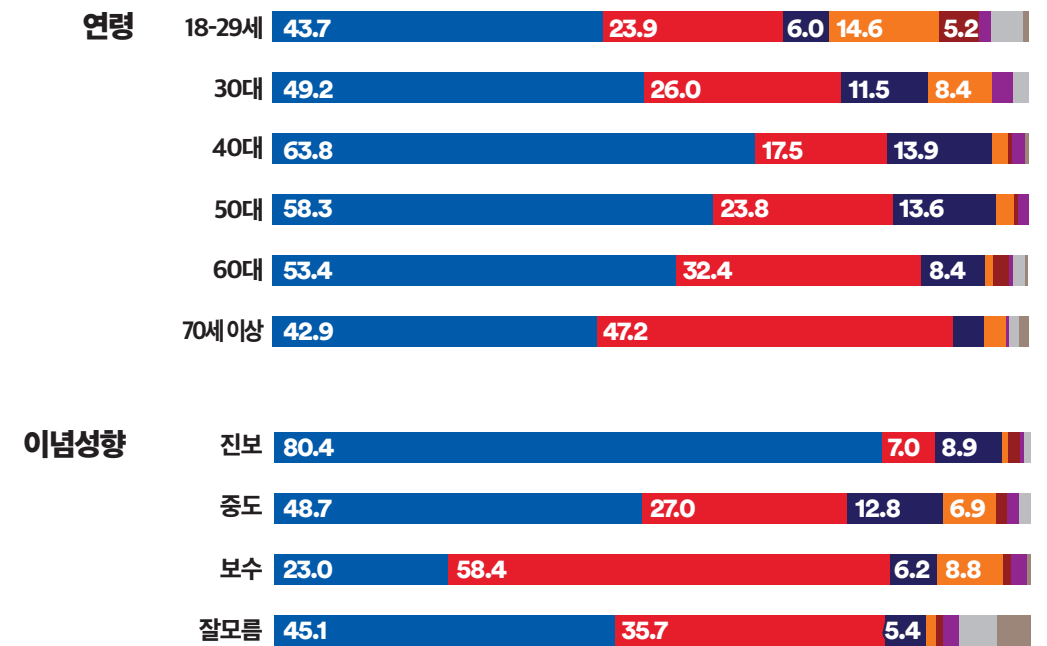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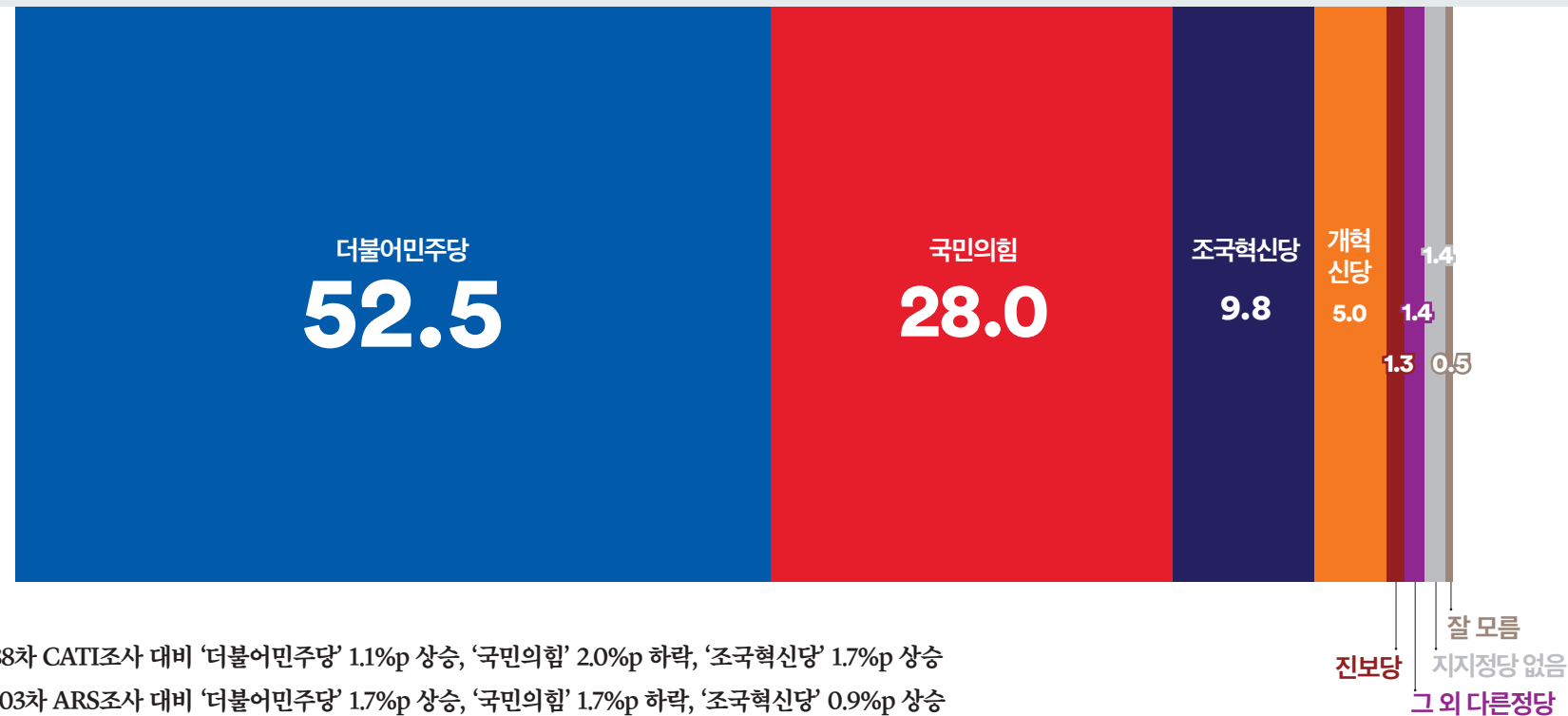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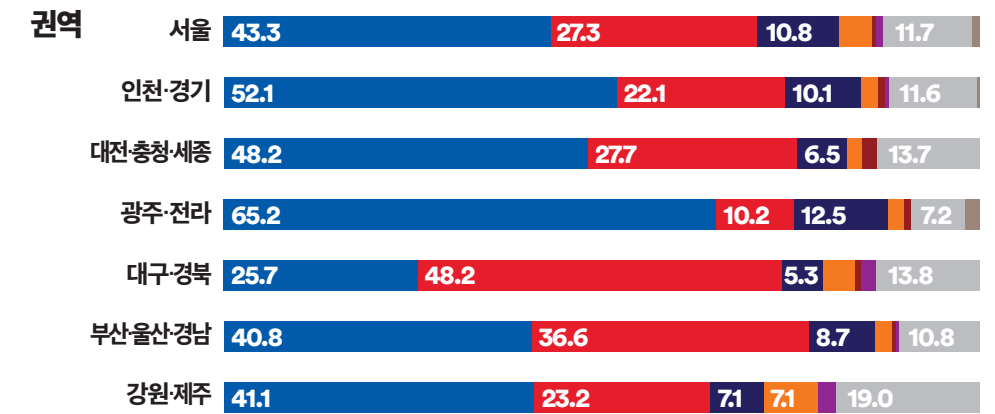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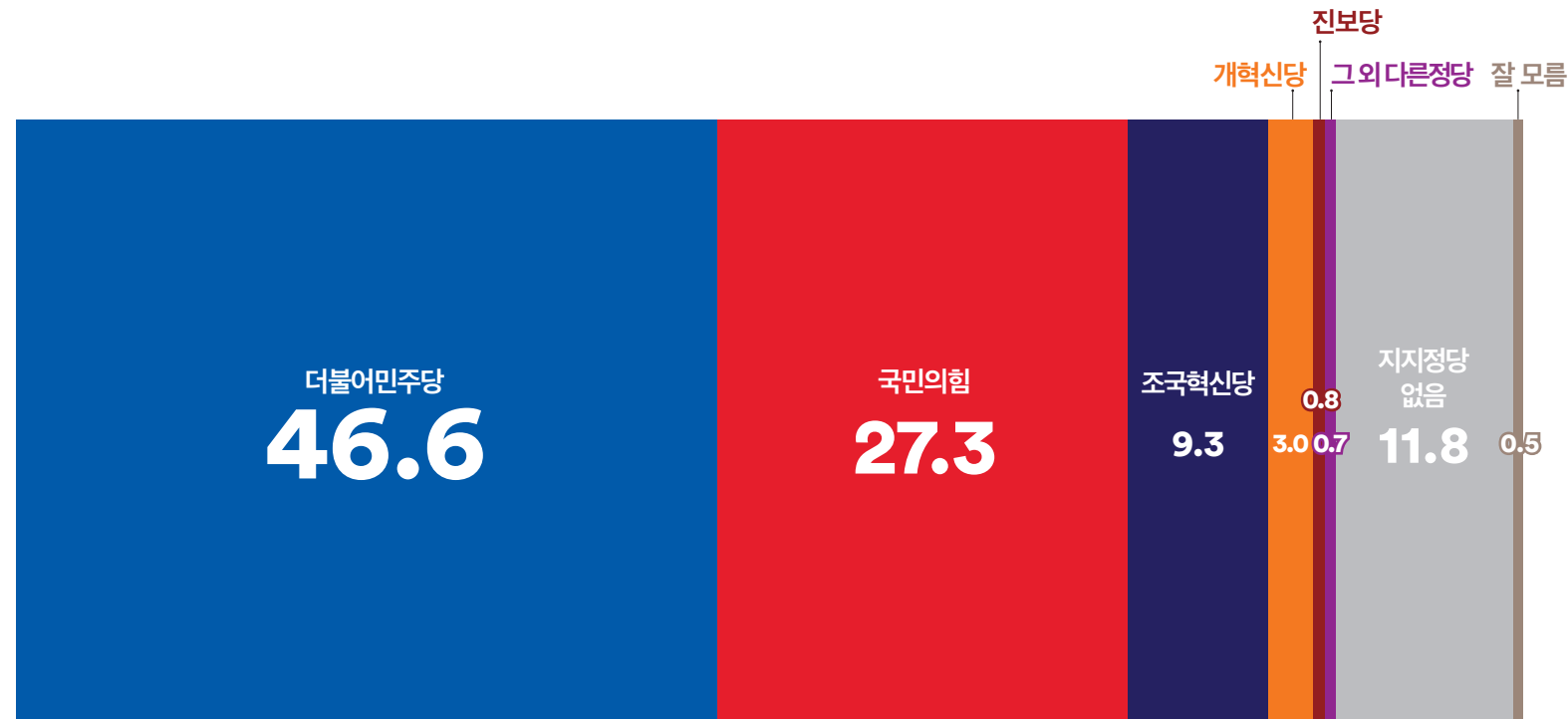


88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상승, '국민의힘' 2.0%p 하락, '조국혁신당' 1.7%p 상승
 103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7%p 상승, '국민의힘' 1.7%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9.3%p, ARS 24.5%p(지난 조사: CATI 16.2%p, ARS 21.1%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8.6%p, ARS 34.3%p(지난 조사: CATI 23.8%p, ARS 3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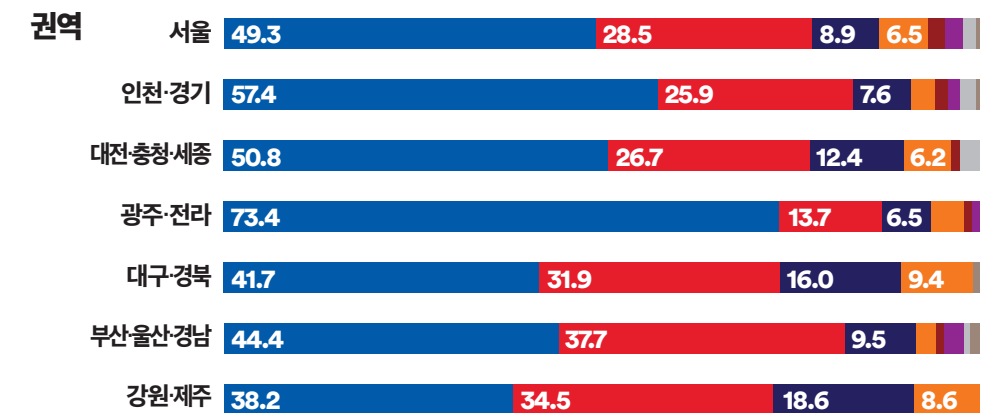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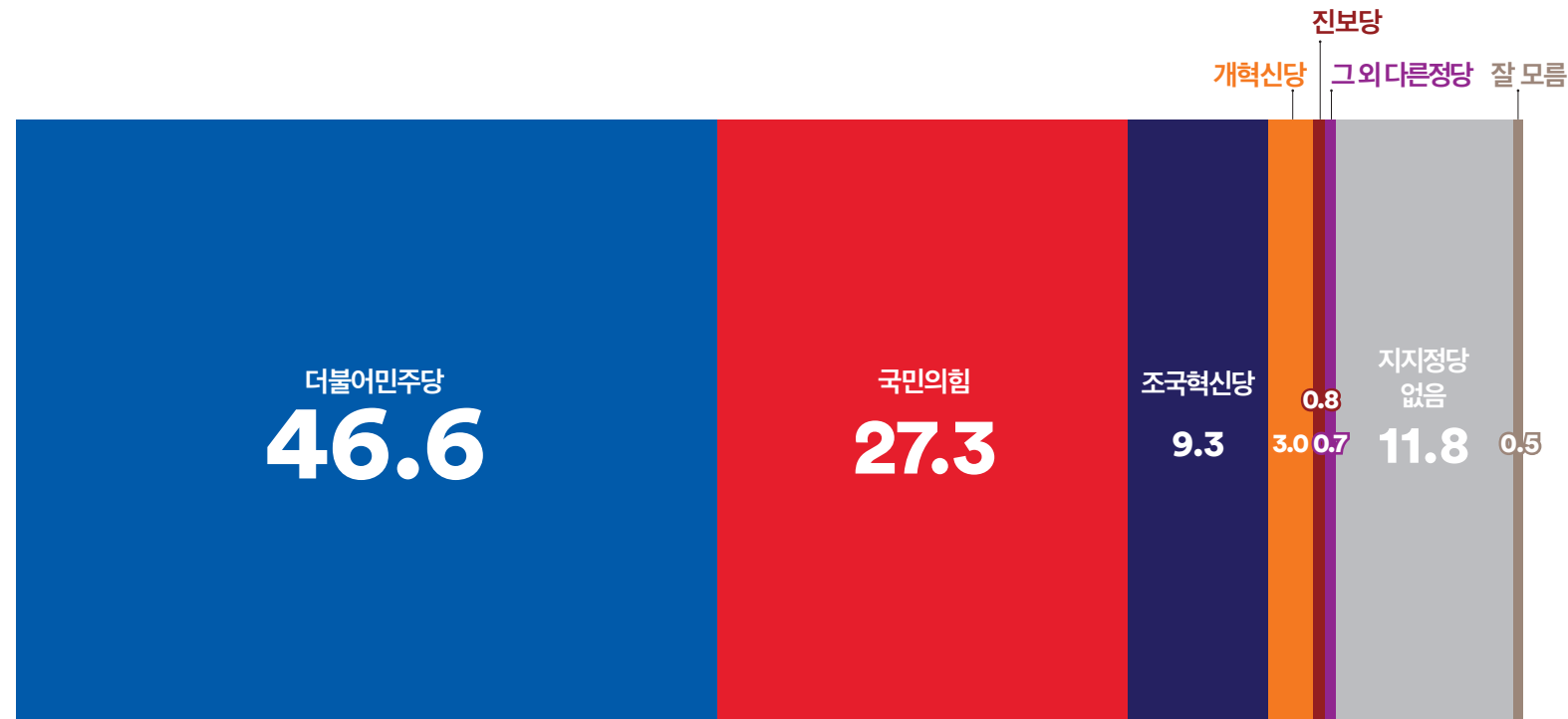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소폭 앞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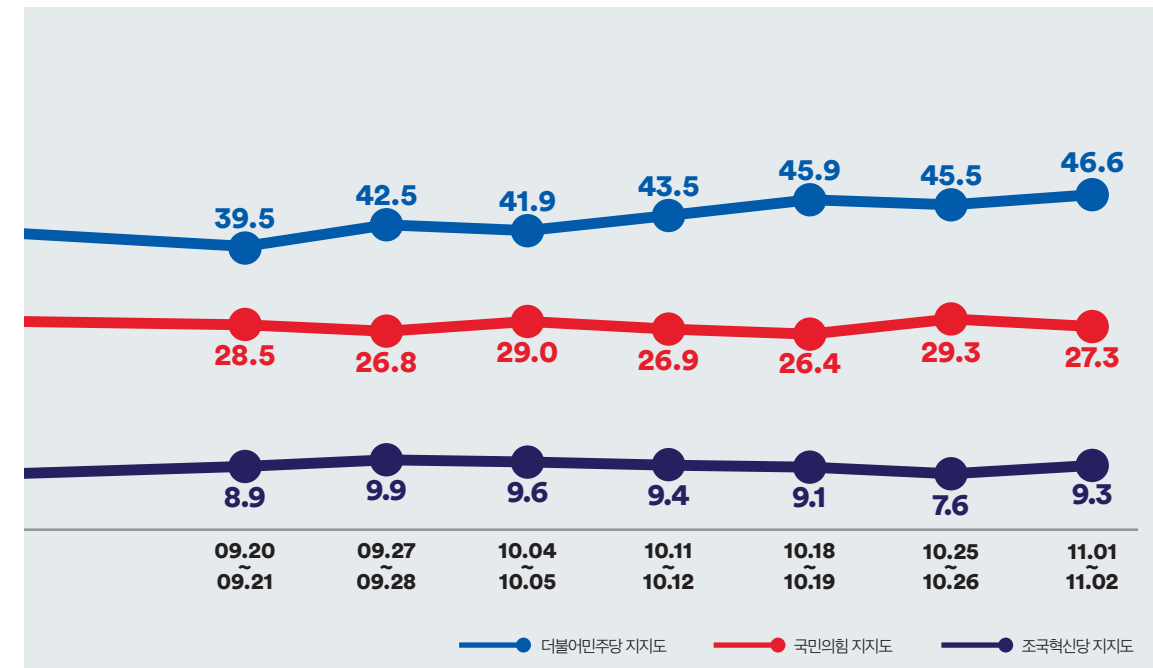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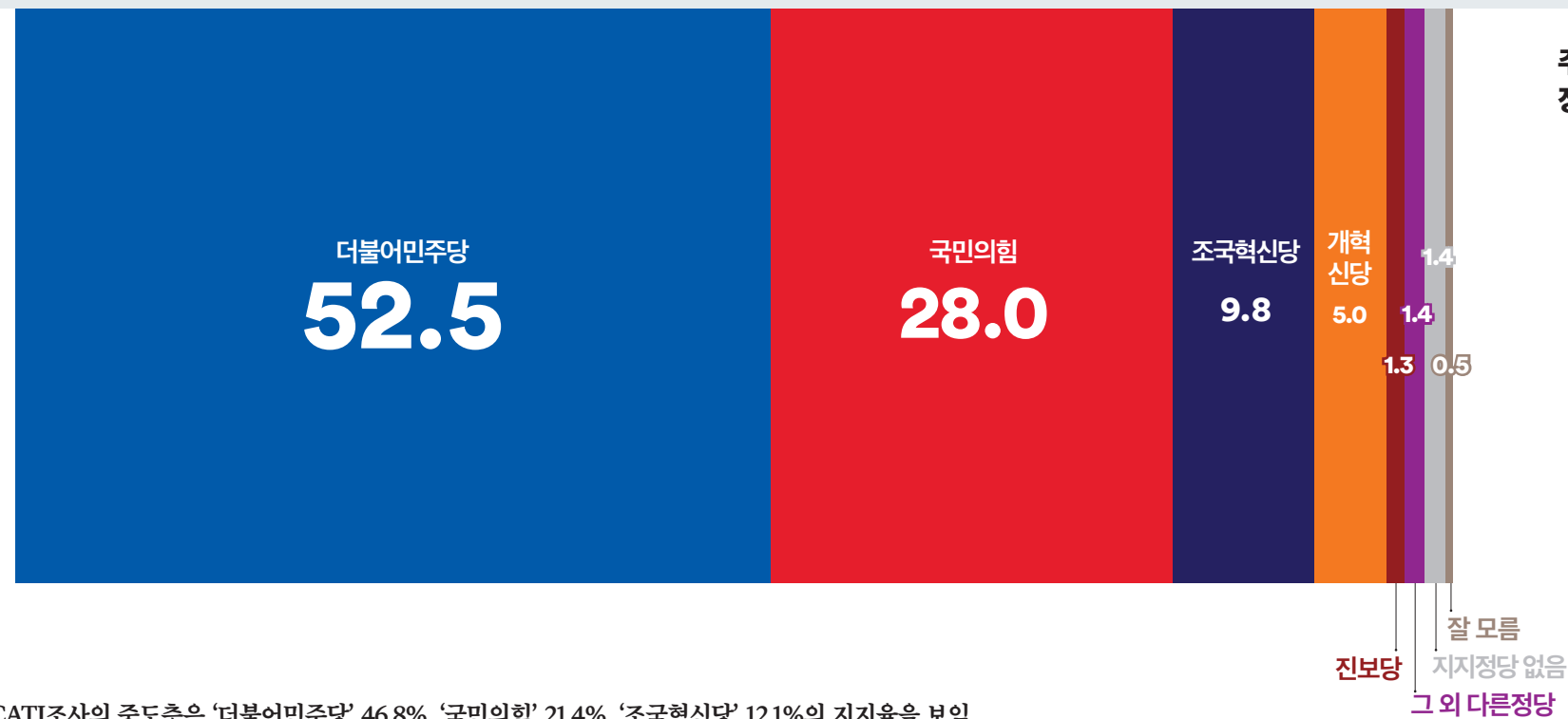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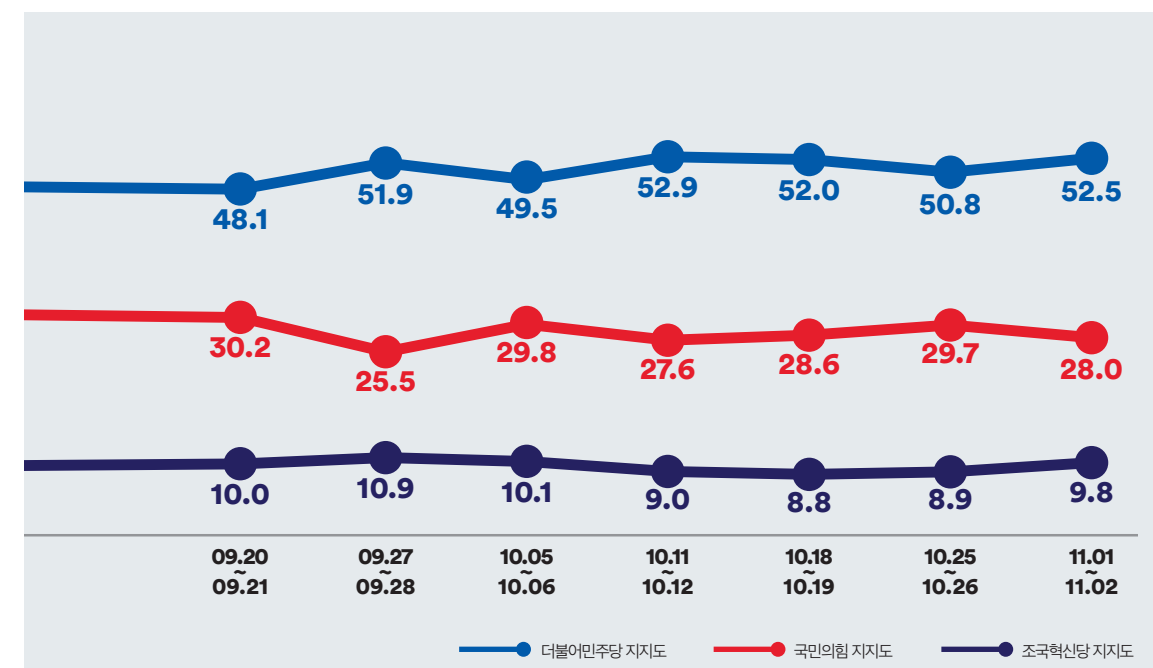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21.4%, '조국혁신당' 12.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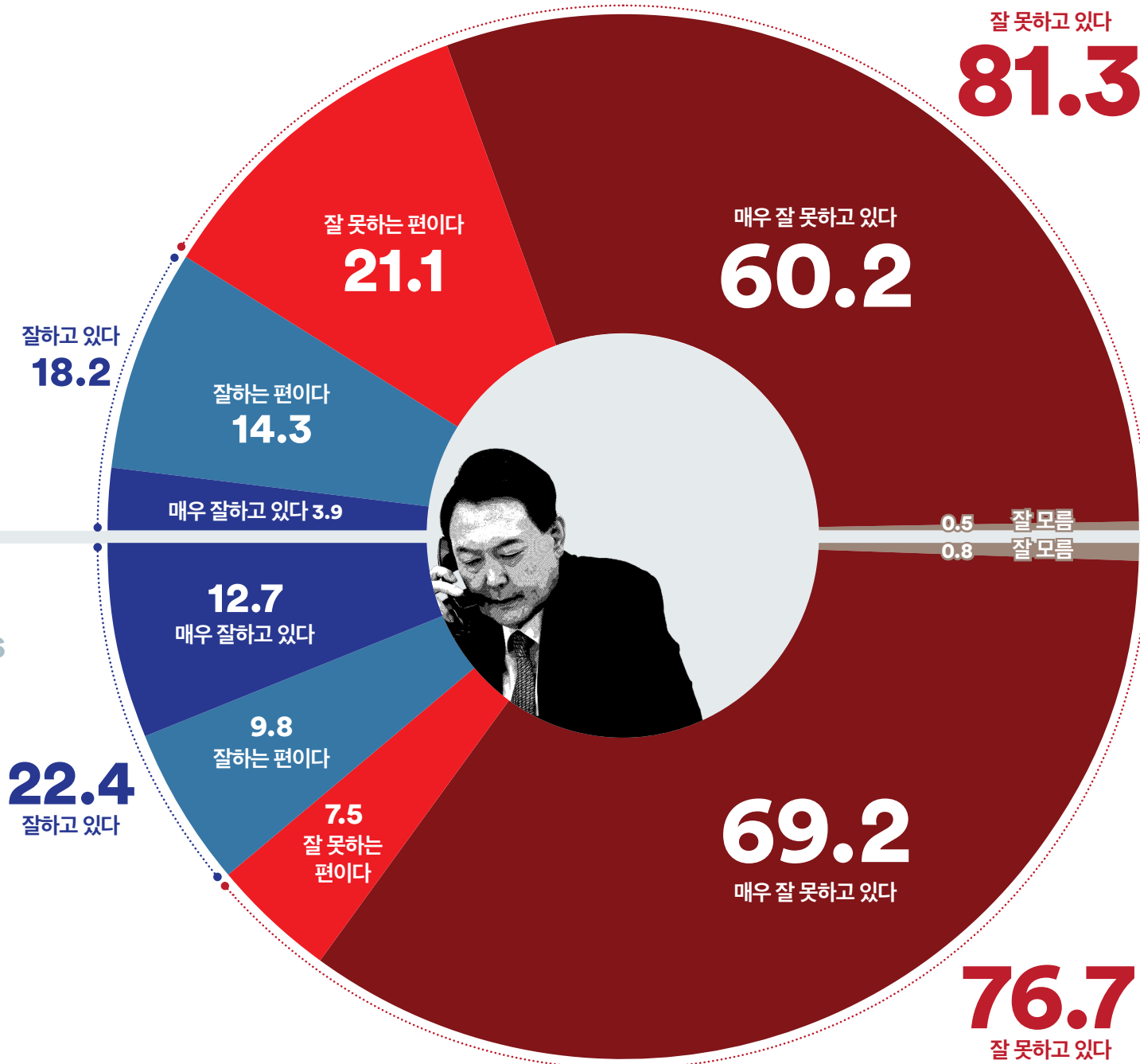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27.0%, '조국혁신당' 12.8%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7.5%p(88차: 34.6%p), ARS 34.5%p(103차: 36.6%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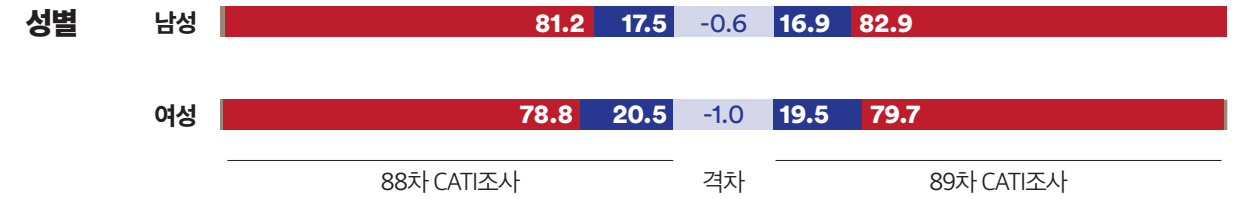


88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8%p 하락, '부정' 평가 1.3%p 상승(격차 63.1%p), 긍정평가 최저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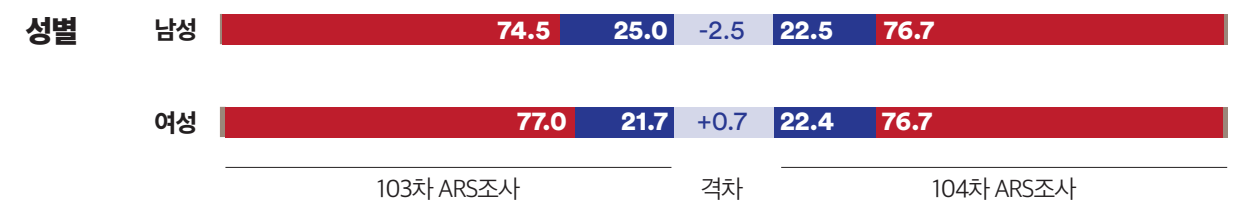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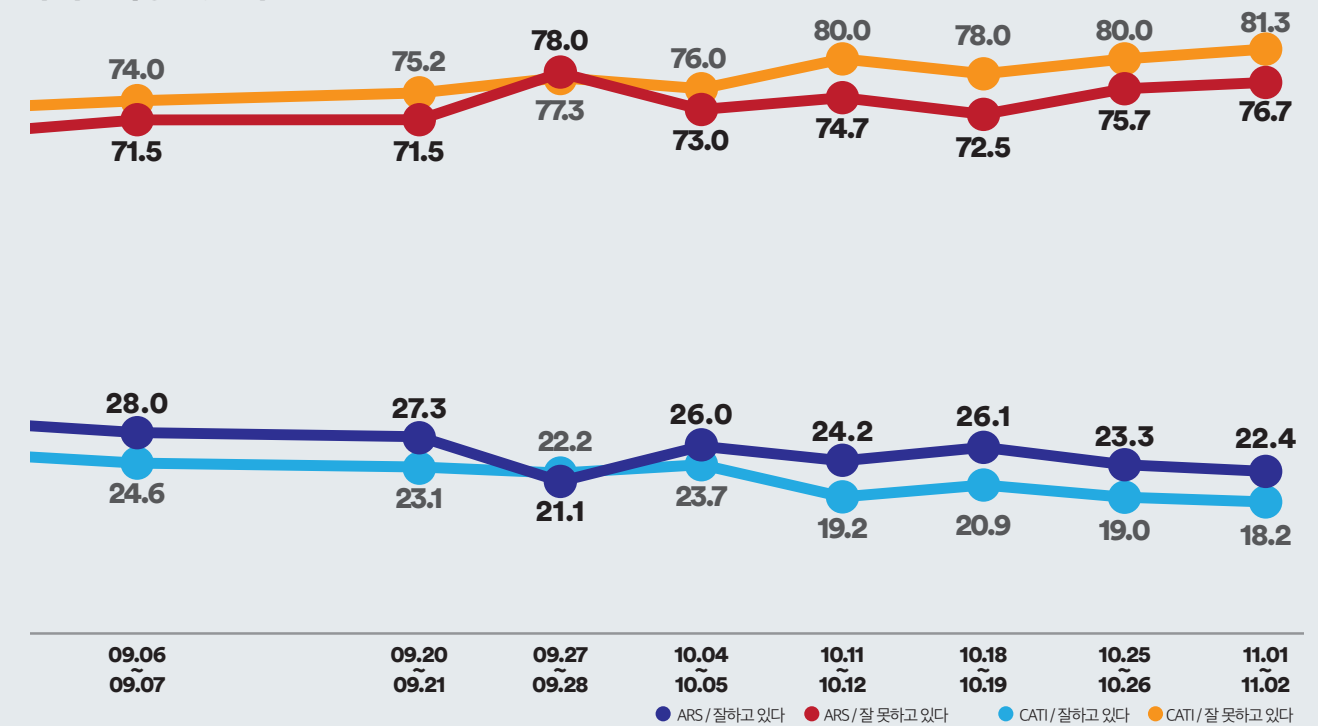
103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9%p 하락, '부정' 평가 1.0%p 상승(격차 54.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3.1%p(지난 조사: 71.7%p), ARS 55.6%p(지난 조사: 6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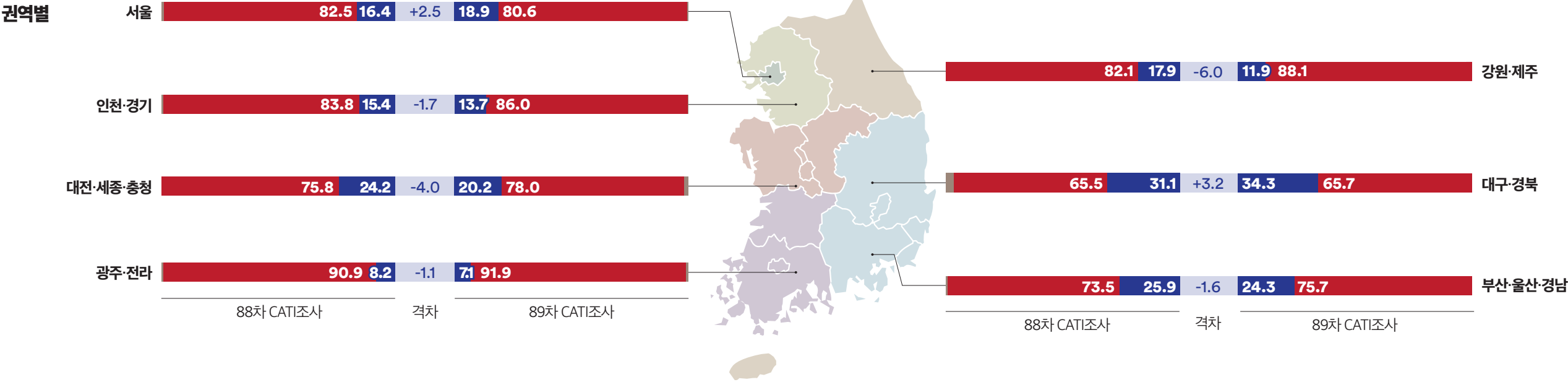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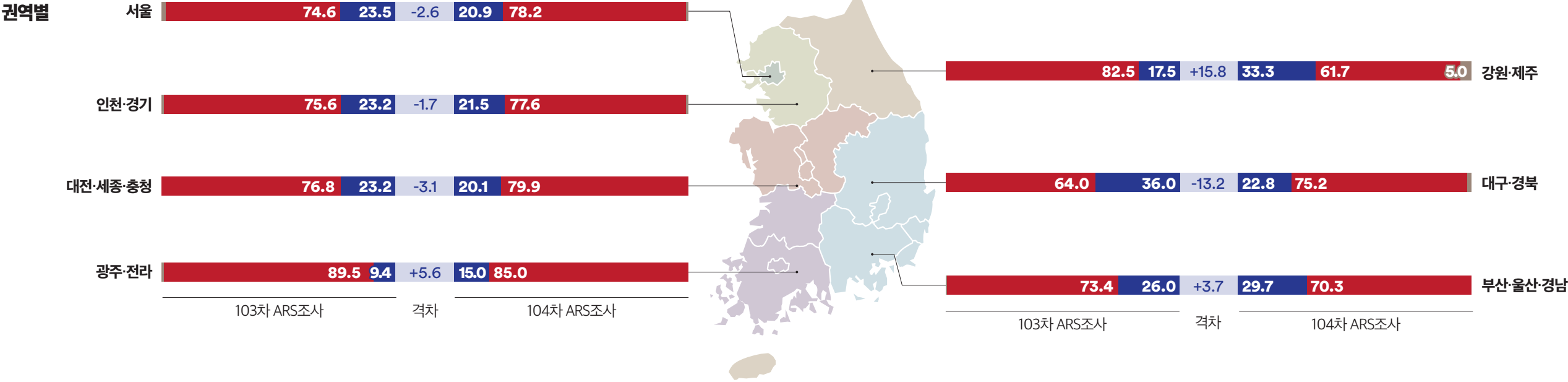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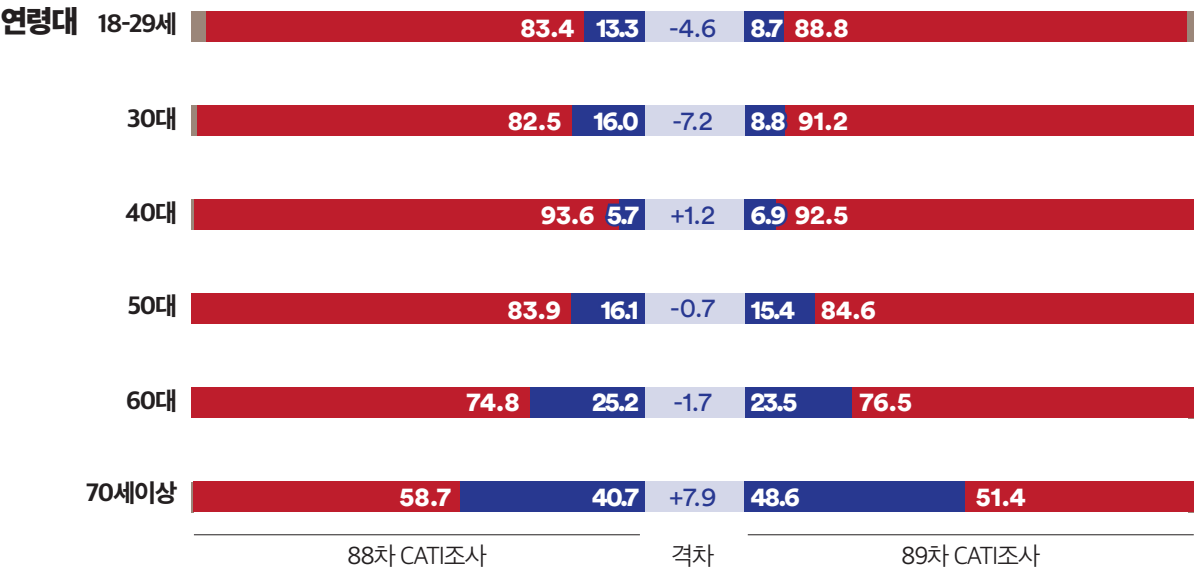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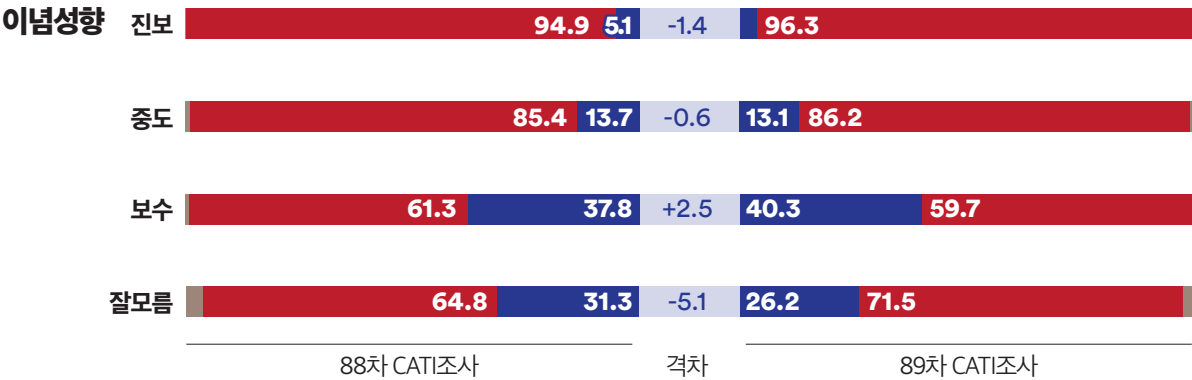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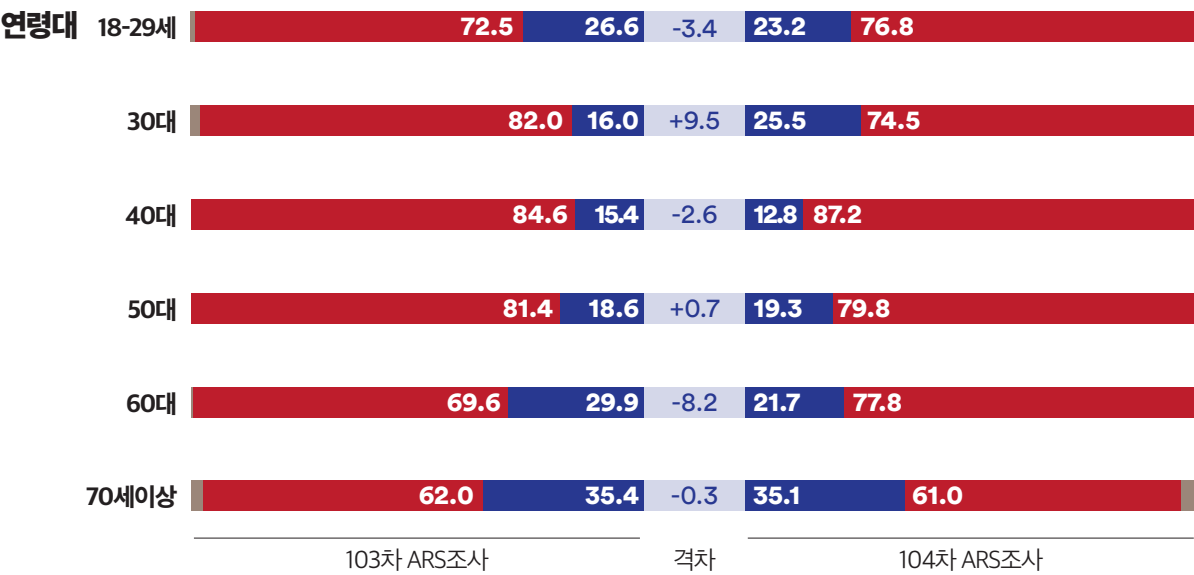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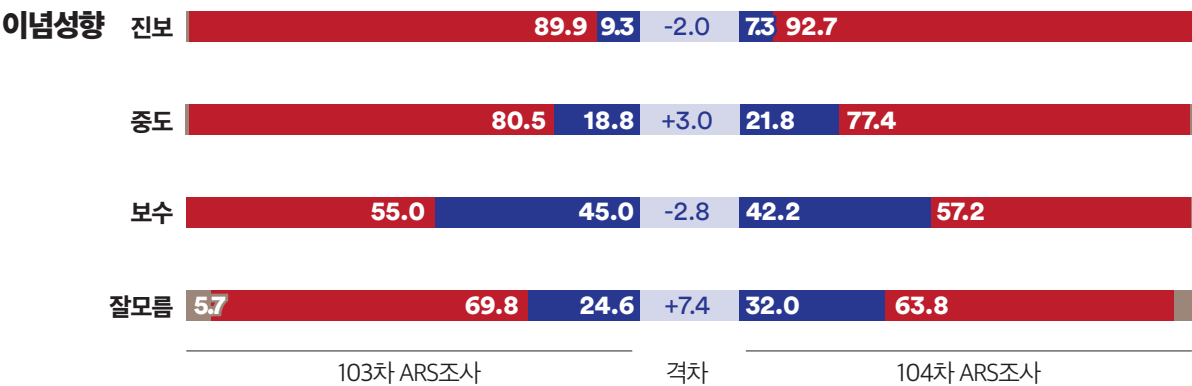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조작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CATI

“국민의힘 당대당 (문항) 있죠?”
“그럼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똑같이.”
“국민의힘 당대당,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할때”
“똑같이.”

[2021년 9월 17일 통화내용]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추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그거 한, 해 가지고 한 (응답 샘플을) 2천개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TV 토론(문항)은 홍(준표)을 한 4% 빼.”
“‘잘 모르겠다’ 그 쪽으로 돌려,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 젊은 아이들 있다 아십니까? 무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2021년 9월 29일 통화내용]

[명태균씨와 공약제보자 강혜경씨의 통화 중 명태균씨 발언 정리]

ARS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61.5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66.3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32.0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25.8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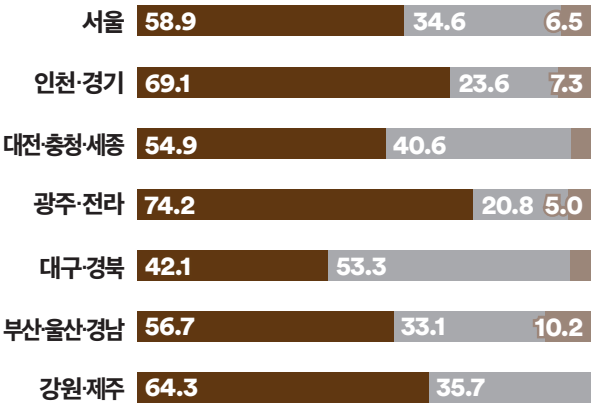
6.5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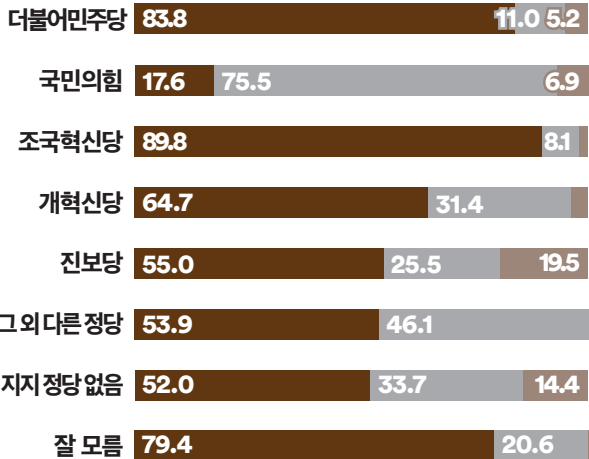
7.9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29.5%p, ARS 40.5%p)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과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조사 모두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란 응답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영향없을 것’이란 응답 비율이 높고 ARS조사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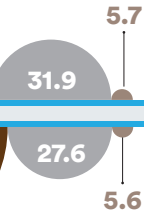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남성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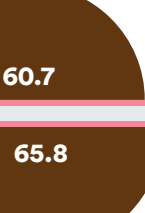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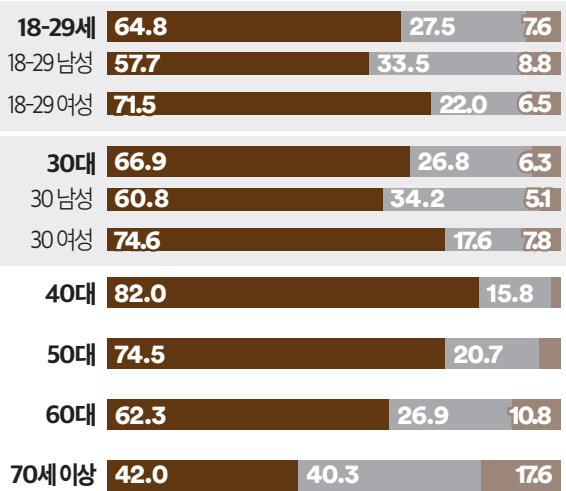
남성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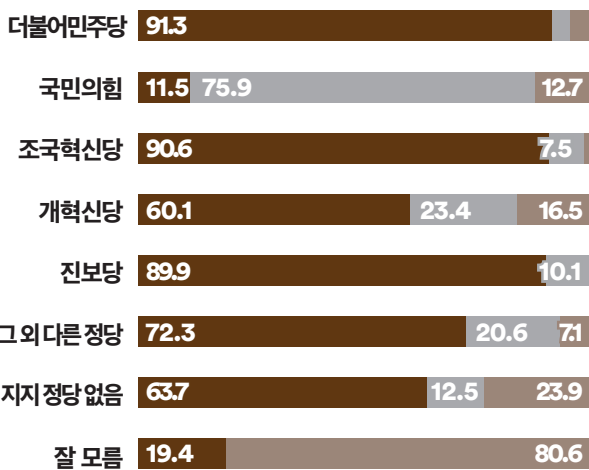
여성



연령대



정당지지도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 잘 모름

Q.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참모진 회의에 올라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비공표 보고서가 어떻게 캠프에 전달되었다고 보십니까?

CATI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상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특히 선거 한 60일 30일 임박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놓고 예를 들어 이런 지시를 하죠. 어디 어디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니 어디 어디 위원장이나 조직 담당에게 거기에 뭐 뭐를 보강해야 되겠다. 데이터를 보고 긴급하게 동선을 바꾸는 거죠.”

“전략상황(조정)회의에서 자주들 얘기를 해요. 제가 불법으로 입수할 길은 없잖아요. 중이는 당연히 봤을 거고, 그 당시에 그 파일을 임박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막 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미리 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략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명태균 보고서) 저기를 가지고 있겠죠.”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전 윤석열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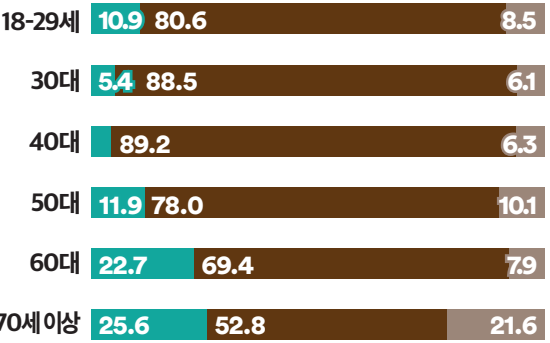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공표 보고서는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63.3%p, ARS 62.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에서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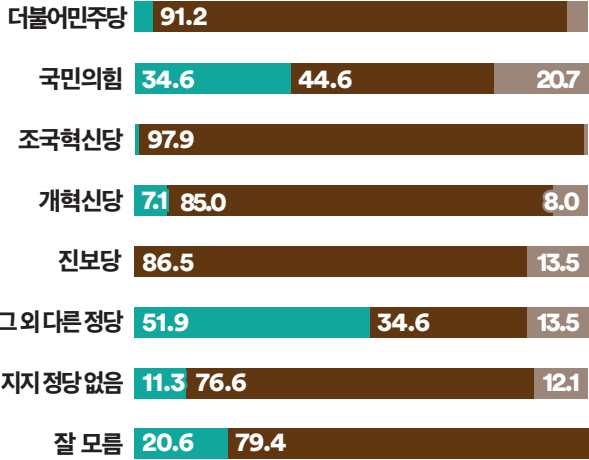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까지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란 응답이 소폭 높고, ARS조사는 응답자 절반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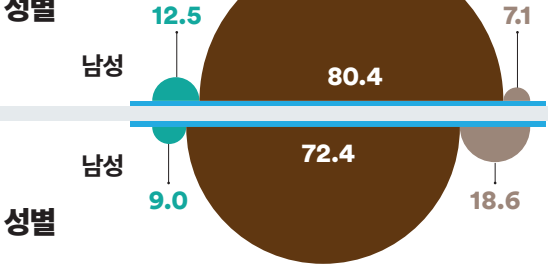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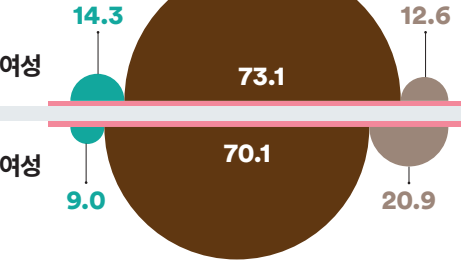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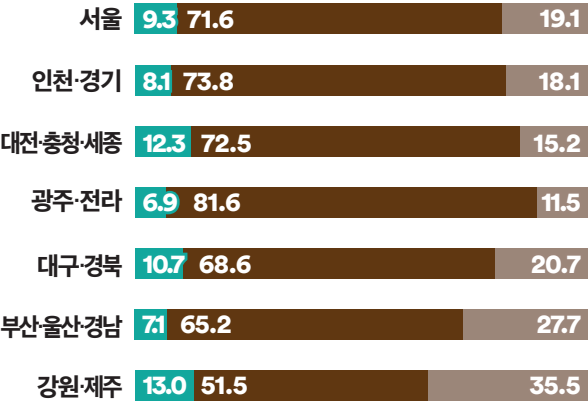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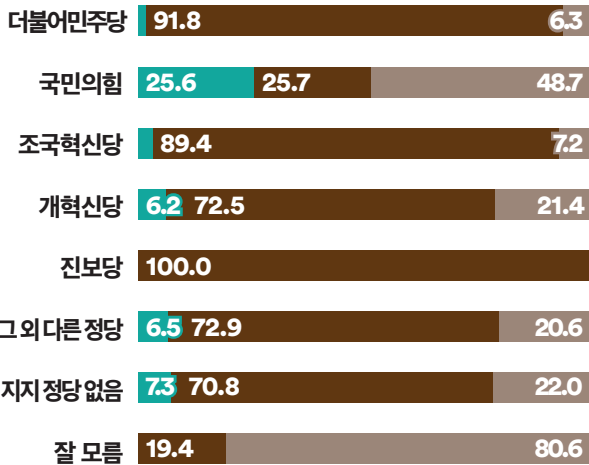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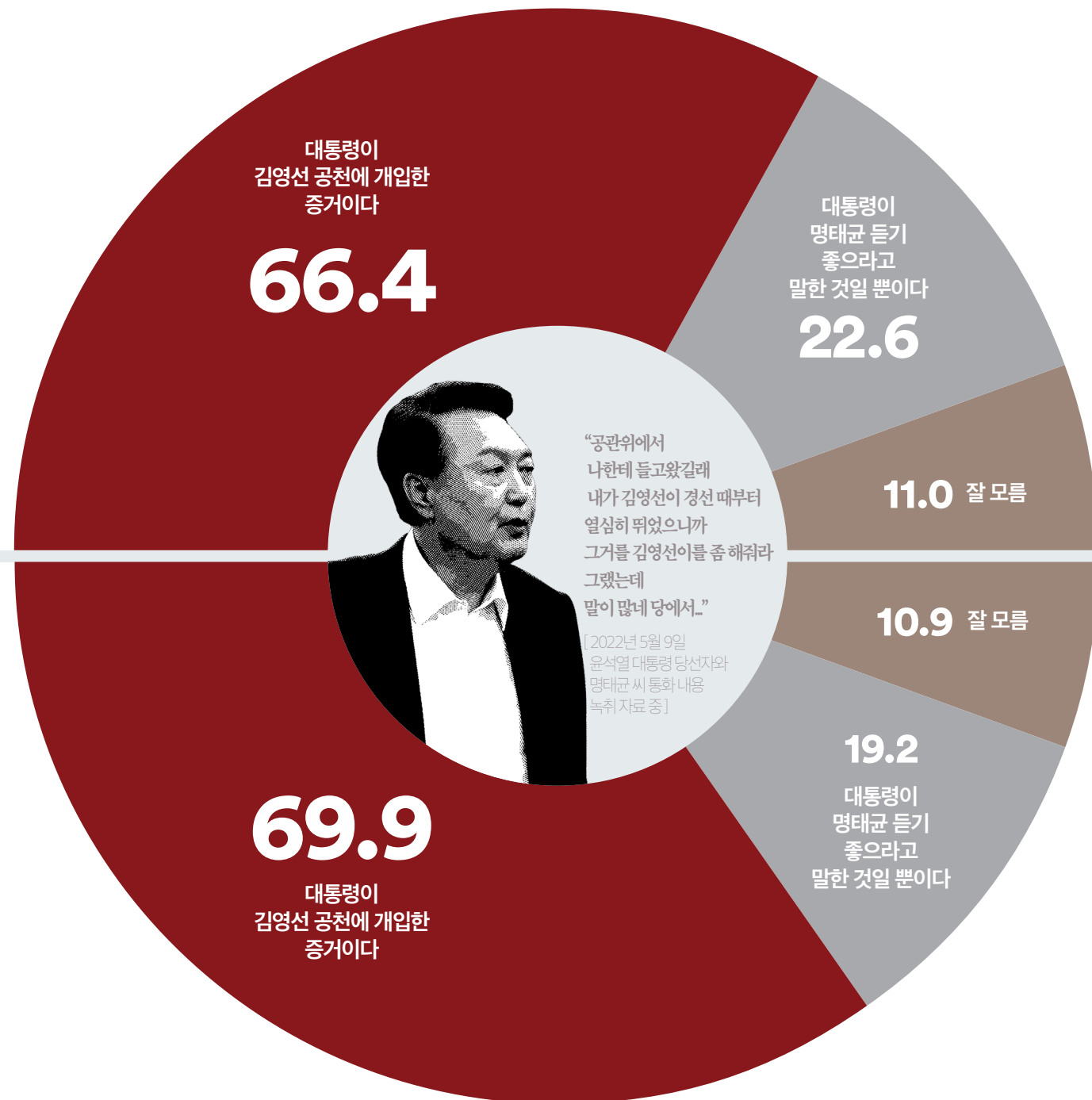


우연히 유출된 자료가 들어갔을 것이다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잘 모름

Q. 윤 대통령이 명태군 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고 공관위에 말했다는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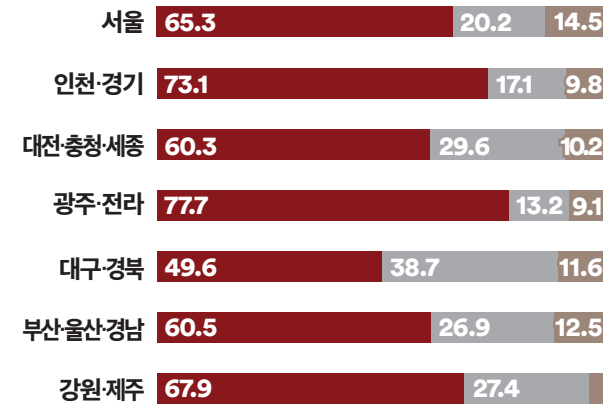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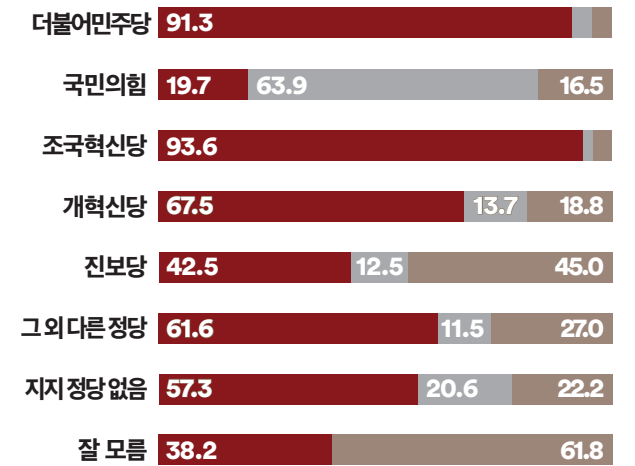
10명 중 6~7명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3.8%p, ARS 50.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공천개입의 증거’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두 조사 모두 ‘명태군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남(응답간 격차: CATI 44.2%p, ARS 4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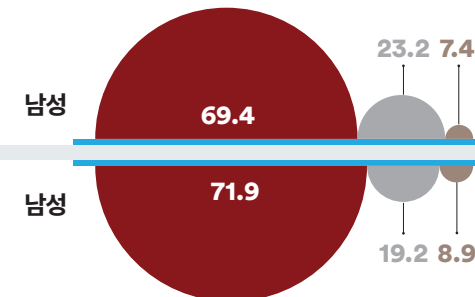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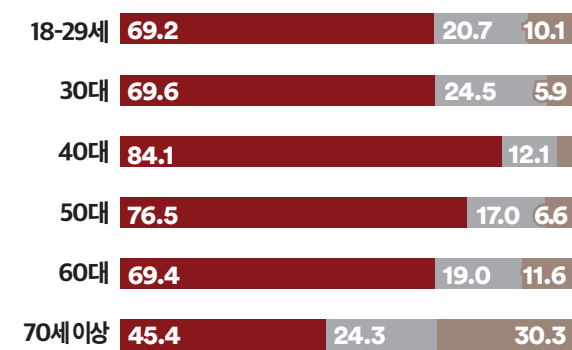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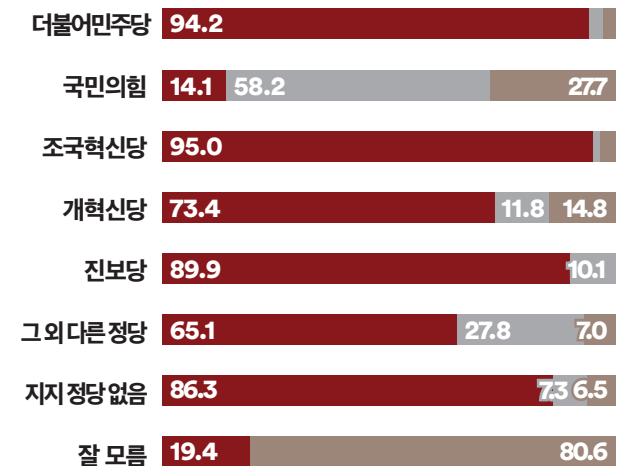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증거이다
대통령이 명태군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잘 모름



Q.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북한 자극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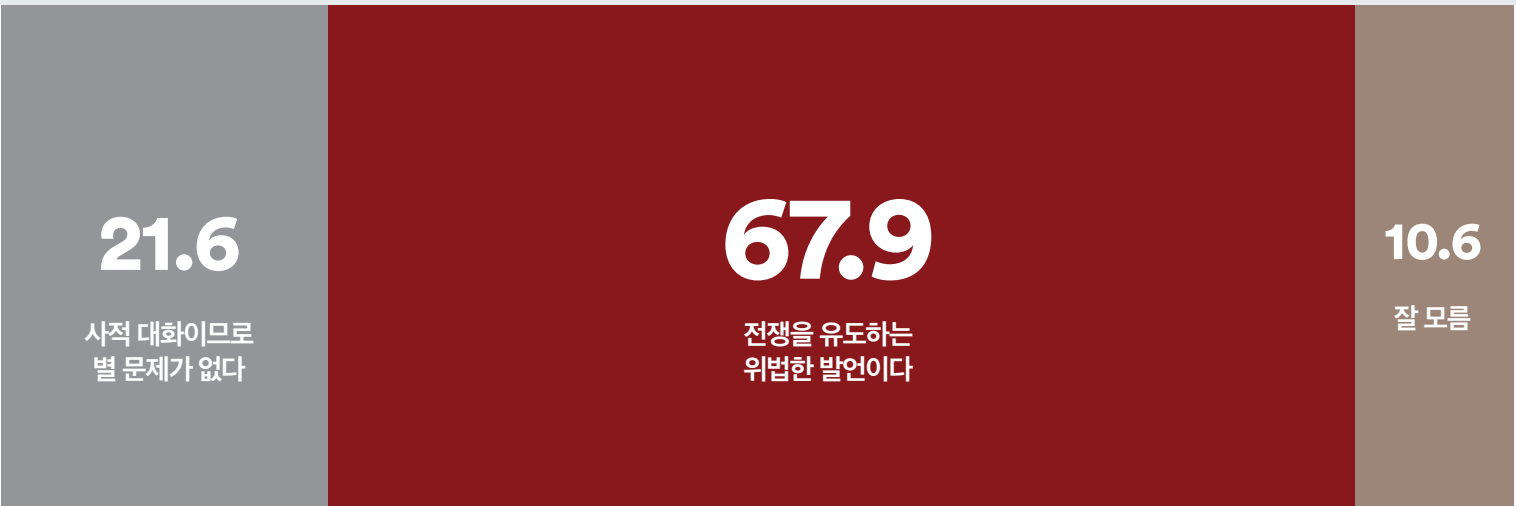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10월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나눈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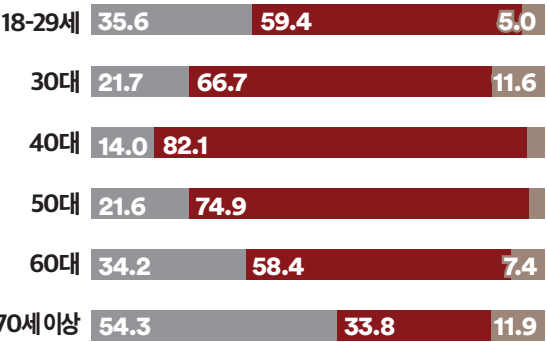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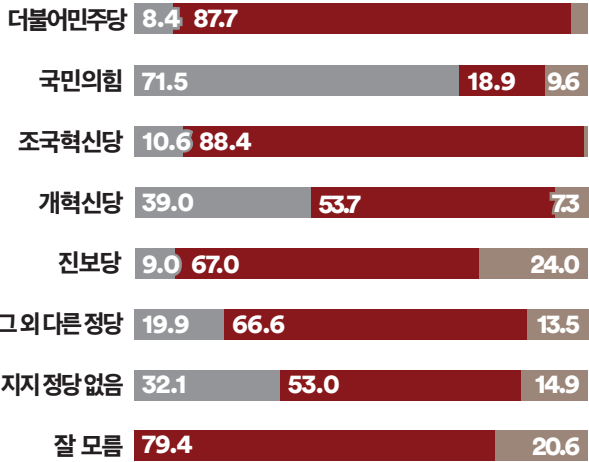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라고 응답 (응답 간 격차: CATI 34.0%p, ARS 46.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위법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응답간 격차: CATI 52.6%p, ARS 46.2%p)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위법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사적대화로 문제 없다’는 응답이 우세, ARS에서는 ‘위법한 발언’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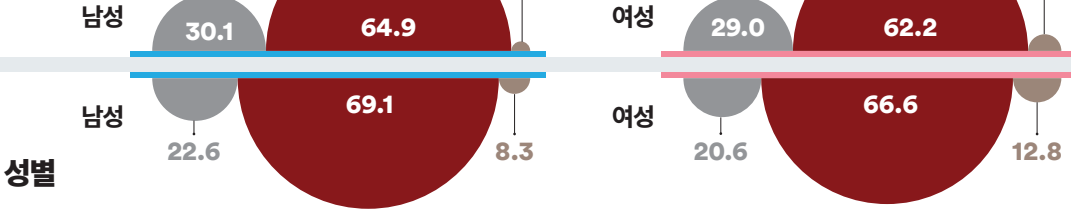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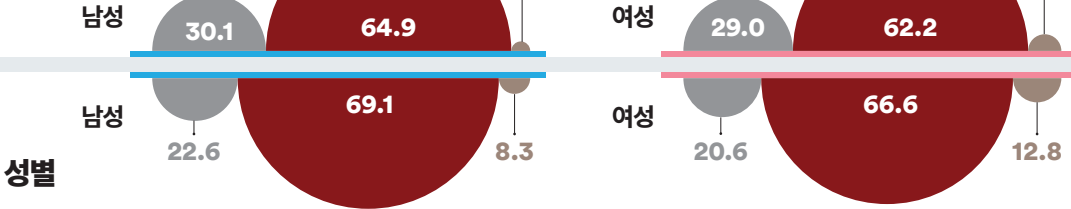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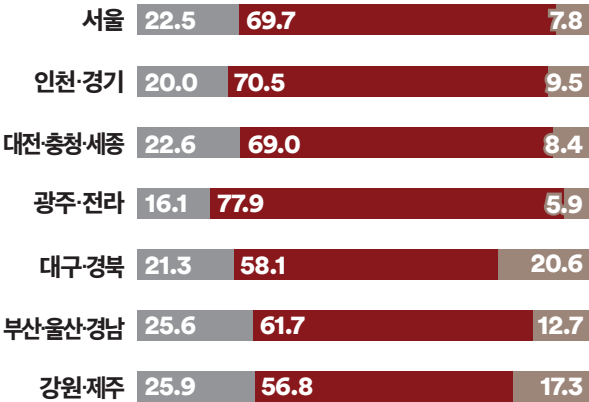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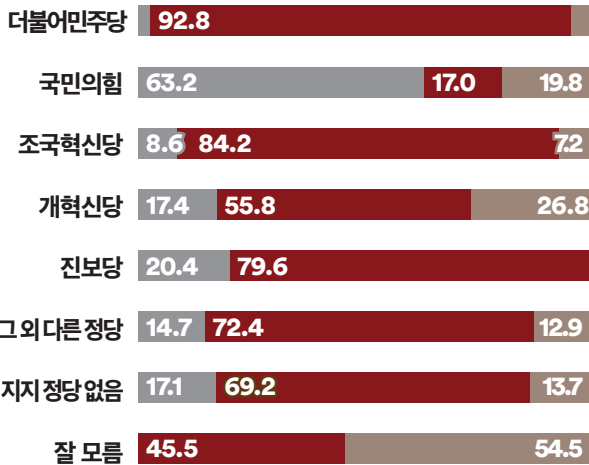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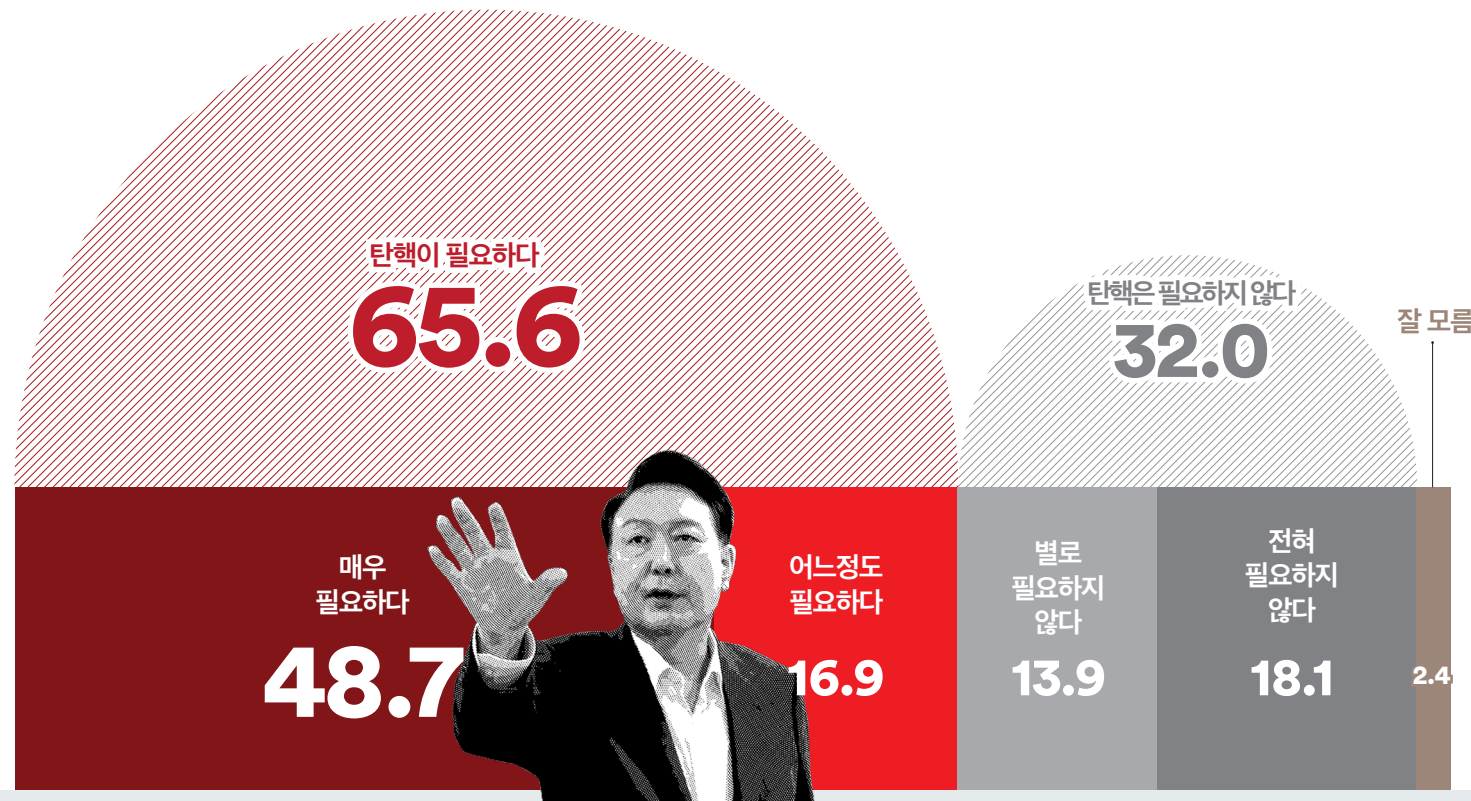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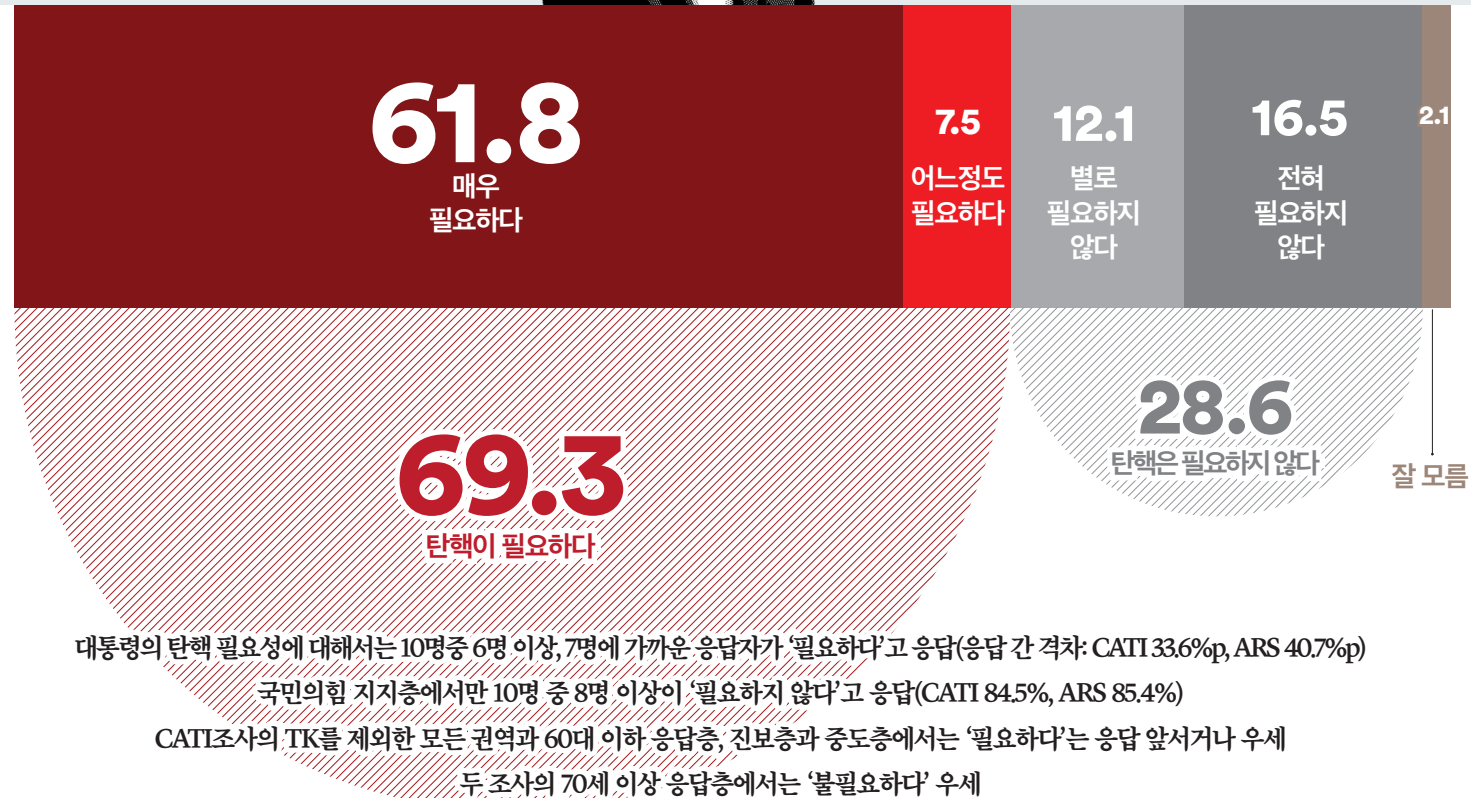
■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다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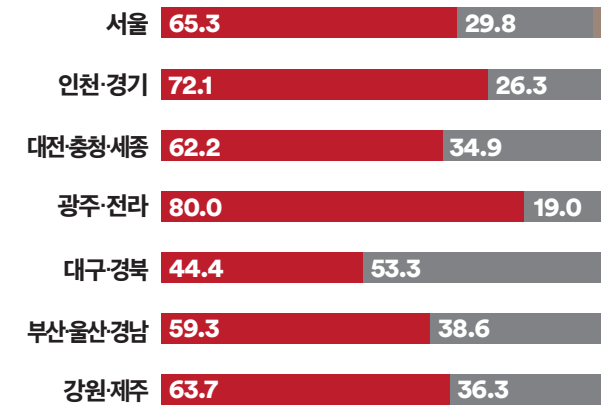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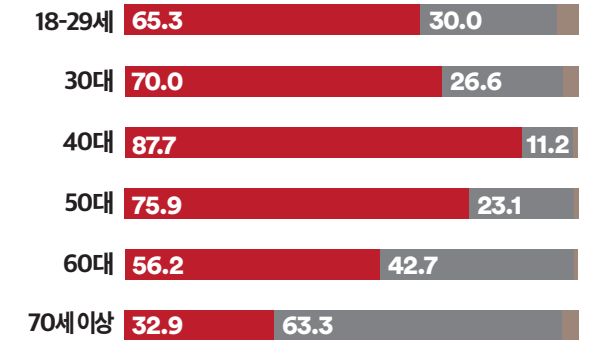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
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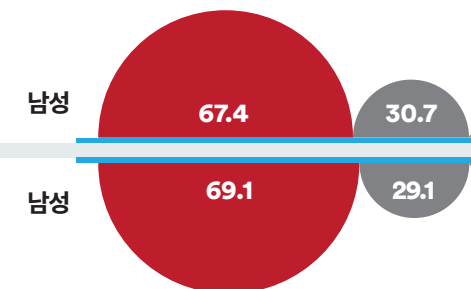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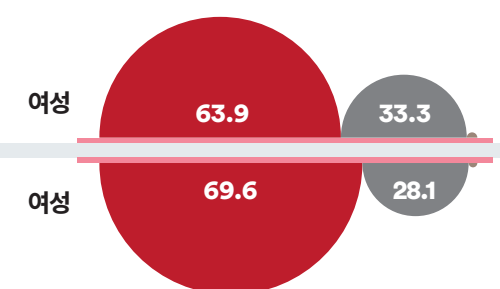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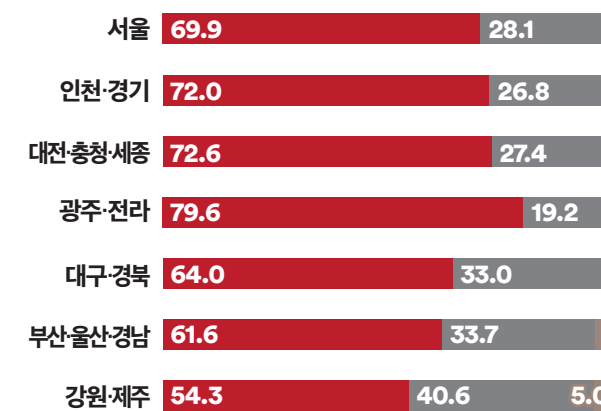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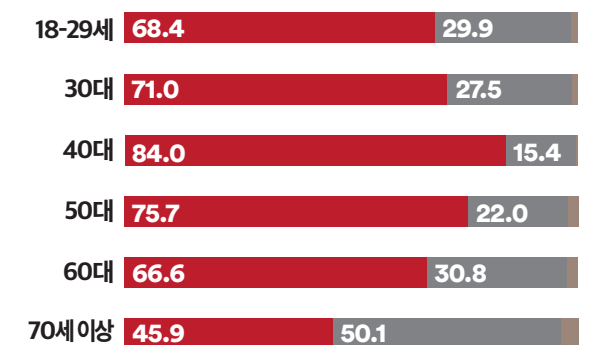
여성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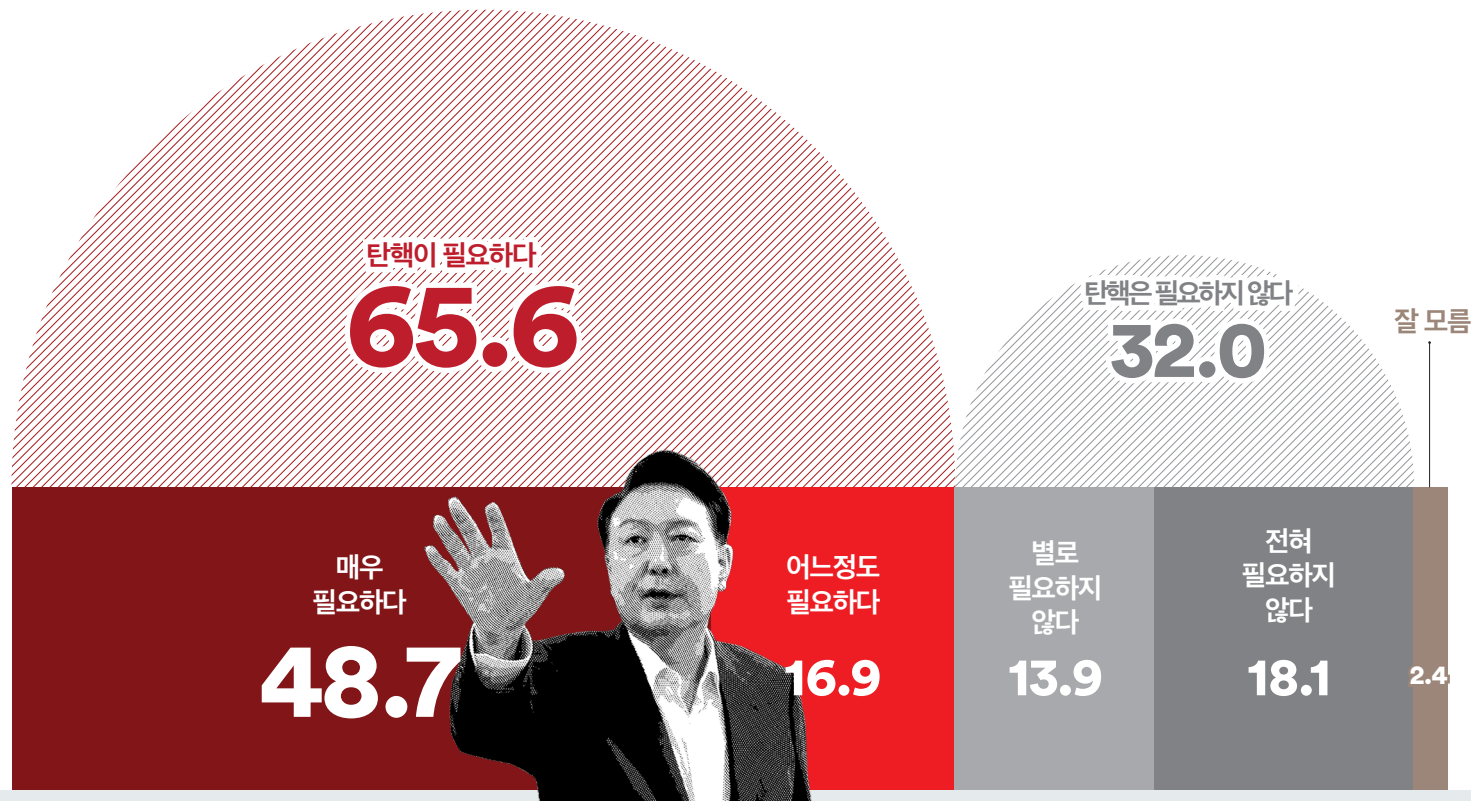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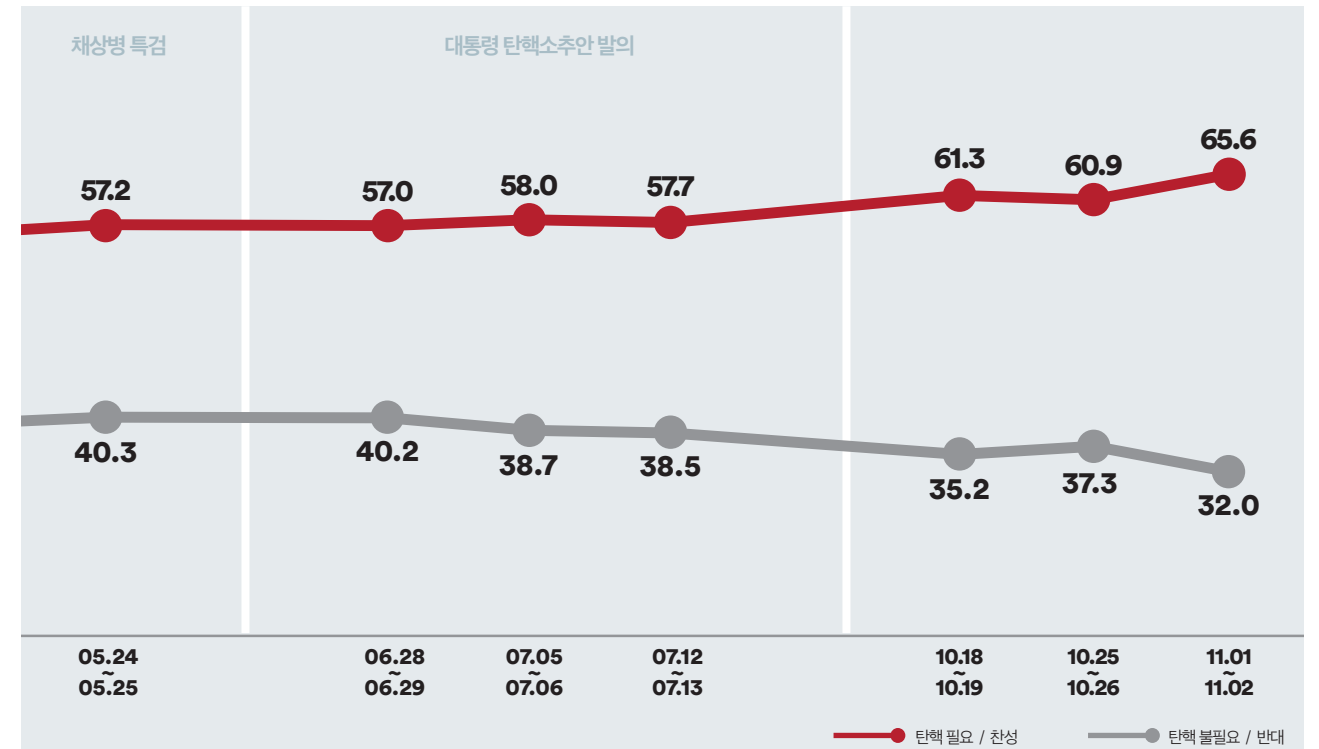
■ 탄핵이 필요하다 ■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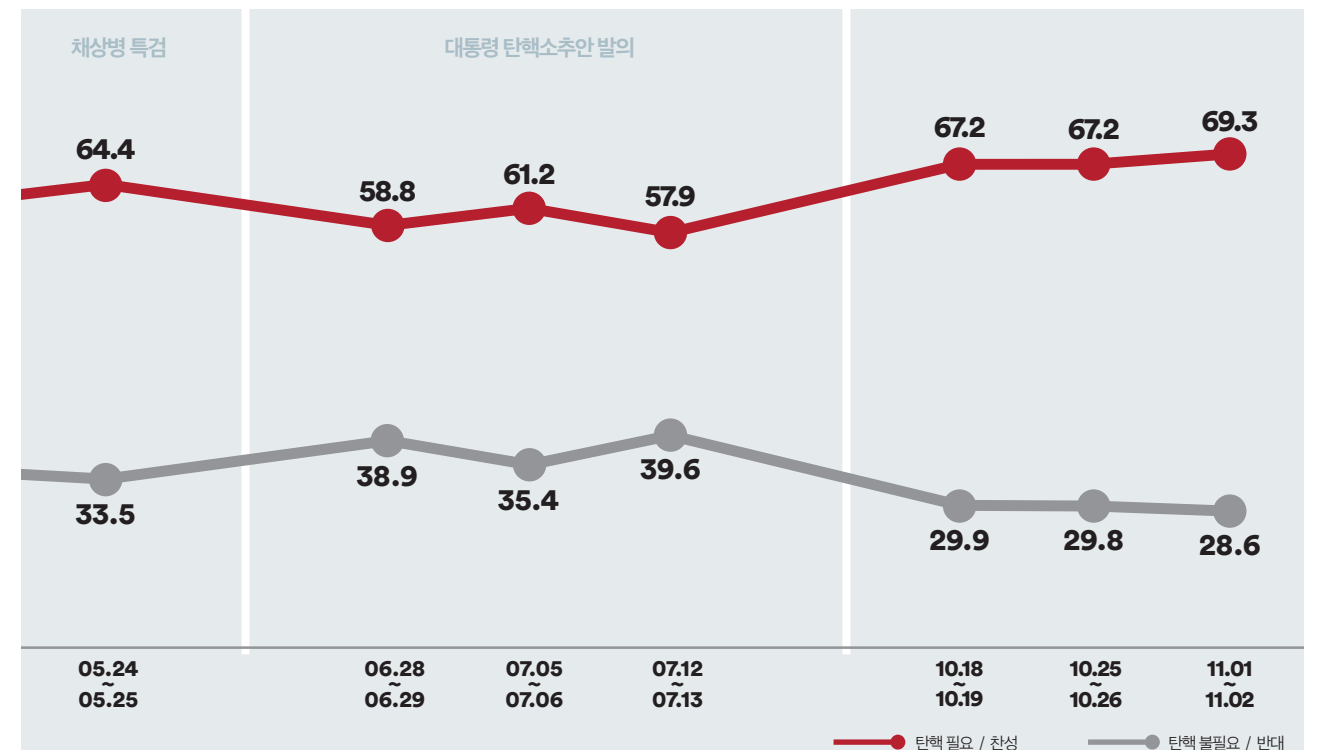
시기별 탄핵의견



ARS



시기별 탄핵의견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

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1_01
